

01

2026 대학별
수시 분석

고려대

전형요소 반영 비율, 수능 최저 기준 변화 주목

고려대 2026학년 수시는 다양한 변화가 있다. 우선 전형별 평가 방법이 달라졌다. 학생부교과 학교추천전형의 서류 반영 비중이 20%에서 10%로 줄어든 한편, 학생부종합 계열적합전형의 면접 비중도 50%에서 40%로 감소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변화가 있다. 최저 기준에서 필수 탐구 응시 과목이 폐지되면서 사회탐구 응시자도 자연 계열 지원이 가능해졌다. 학업우수전형의 반도체공학과 차세대통신학과 스마트모빌리티학부, 논술전형의 경영대학은 최저 기준이 완화됐고, 사이버국방전형의 최저 기준이 폐지됐다. 정시에서만 모집했던 학부대학이 수시에서도 16명을 선발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고려대 입학처 정안나 책임입학사정관에게 2026 수시에서 주목할 점을 들었다.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대학별 전형 분석 자문단

강권일 교사(제주 삼성여자고등학교)

오원경 교사(경기 용인홍천고등학교)

유태혁 교사(서울 세화여자고등학교)

Q 2025 대입은 의대 증원의 여파 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결과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과 지원층이 가장 많이 겹칠 것으로 예상됐던 학교추천전형의 생명·바이오 관련 모집 단위의 결과 또한 예년과 비슷했다. 다만 비수도권 지원·합격자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학생부종합 학업우수전형은 면접이 없는 서류 100% 전형으로 바뀌면서 경쟁률과 합격선이 상승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원·합격자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Q 무전공 모집 단위의 인문·자연 성향별 지원·합격 비율은?

인문 계열 기준으로 평가한 자유전공학부 합격자 중 수능 과탐 응시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자유전공학부는 전신이 법대이고, 제2전공으로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이 지정돼 있다. 수시에서는 학부의 정체성이나 교육과정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내부의 의견이 반영됐다. 반면 공과대학 광역 모집은 자연 계열 성향 지원자가 몰렸다. 신설임에도 화공생명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등 공과대학에서도 우수 지원이 선호하는 모집 단위와 합격선이 유사하게 형성됐다. 올해도 평가 기준은 큰 변화가 없다.

또 정시 다군에서만 선발했던 학부대학은 올해 수시 학업우수전형에서 8명, 논술전형에서 8명을 선발한다. 학업우수전형은 자연 계열 기준으로 서류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논술전형도 자연 계열 논술을 치른다. 자유전공학부와 학부대학 모두 유형 1에 해당하는 만큼 입학 후 전공 선택은 계열 제약 없이 열려 있다.

Q 학교추천전형의 서류 평가와 계열적합전형의 면접 평가 비중을 10%씩 낮춘 이유는?

지원층이 유사한 타 대학의 교과전형은 대개 교과 100%로 선발한다. 그래서인지 지원자들이 고려대의 서류 평가 비중을 명시한 것보다 높게 체감하고, 일선 고교에서도 교과 100%에 비해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수요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정했다고 보면 된다.

한편 교과 평가에서 평균 등급을 산출할 때 2·3등급 반영 점수가 각각 96점, 92점으로 조정됐다. 전년 같은 등급 반영 점수가 각각 98점, 94점이었음을 고려하면 1등급과 2, 3등급의 차이가 커졌다.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커지고 서류 평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계열적합형의 면접 비중을 50%에서 40%로 조정한 것은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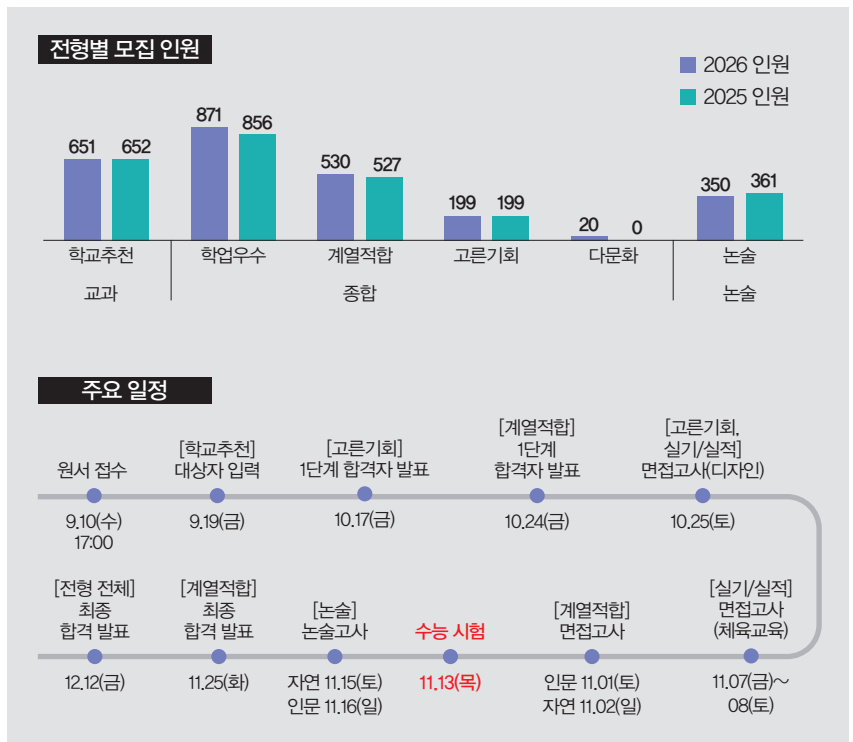
Q 학교추천·학업우수전형의 최저 기준 완화와 자연 계열 수능 지정 과목 폐지에 따른 변화를 예상한다면?

학교추천전형은 최저 기준에 반영하는 탐구 과목을 2과목 평균에서 상위 1과목으로 바꾸고, 학업우수전형은 반도체공학과 차세대통신학과 스마트모빌리티학부의 최저

2026 고려대 수시 주요 전형 OVERVIEW									
전형	전형명	전형 방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교과	학교추천	교과 90+서류 10 ※ 최대 추천 인원 12명 ※ 학업우수 복수 지원 금지	계열	국	확	미/기	영	사	과
			인문·자연	○	○	○	○	1	4
			의과대학	○	○	○	○	1	4
종합	학업우수	서류 100	계열	국	확	미/기	영	사	과
			인문·자연	○	○	○	○	1	4
			의과대학	○	○	○	○	1	4
	계열적합	[1단계] 서류 100(5배수) [2단계] 1단계 60+면접 40	없음						
	고른기회, 다문화	[1단계] 서류 100(3배수) [2단계] 1단계 60+면접 40							
	사이버국방	[1단계] 서류 100(5배수) [2단계] 1단계 60+면접 20+ 기타 20(군 면접, 체력검정)							
논술	논술	논술 100	계열	국	확	미/기	영	사	과
			인문·자연	○	○	○	○	1	4

※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국(국어), 확(확률과 통계), 미/기(미적분/기하), 사(사탐), 과(과탐), 한(한국사)을 각각 의미하며, '사/과'와 한국사의 숫자는 각각 반영 과목 수와 등급을 말함. '최저'의 '3합 7'은 3개 영역 합 7 이내라는 뜻.

※ 실기/실적(특기자)전형 및 세부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강 참조.



기준을 의과대학을 제외한 인문·자연 계열 기준인 4개 영역 합 8 이내로 완화했다. 최저 기준 충족률과 합격자의 교과 성적 평균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수능 응시 지정 과목 폐지로 상승 폭을 구체적으로 예측

하기는 어렵다.

한편 수능 응시 과목에 제약이 없어졌지만, 교과 평가에서 교과 이수 충실도를 살필 때 지원 모집 단위 계열과 관련한 교과 이수 여부 및 이수 단위 등을 반영한다. 종합전형은 물론, 자연 계열을 지망하면서 관련 과목 이수에 소홀했거나, 인문 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Q 자연 계열 모집 단위에서 학업 우수전형과 계열적합전형 지원·합격자의 수학·과학 교과 이수 단위 합계는 차이가 있었나?

두 전형을 비교하면 모집 단위에 따른 편차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계열적합전형의 지원·합격자의 수학·과학 이수 단위가 더 많았다. 전형별 지원·합격자의 출신 고교 유형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 학업우수전형은 최저 기준이 있어 과학고, 영재학교 지원자의 규모가 크지 않아 이수 단위의 합이 대동소이했다. 다만 의과대학 지원자의 과학 교과, 수학과 수학교육과 등은 수학 교과 이수 단위가 컸다. 계열적합전형 역시 학과에 따라 차이가 컸다. 고교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모집 단위가 달라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Q 학생부 정성 평가에서 발견한 새로운 경향성이 있다면?

공동 교육과정을 많이 이수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 고려대는 고교 과목과 연계성이 강한 자연 계열에 한해 권장 과목을 제시했다. 미이수 시 교과전형은 교과 이수 충실도에서, 종합전형은 자기계발 역량에서 감점 요인으로 활용됐다. 권장 과목을 공동 교육과정에서 찾아 들었다면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이 인정된다. 이수 단위에도 반영되기에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영향력은 크지 않다. 위낙 소규모로 진행되고, 온라인 수업 비중도 크기 때문에 수업을 이수한 것만으로 학생의 역량이 우수하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Q 지난해 재도입한 논술전형 결과와 대비법을 알려준다면?

수능 후 논술고사를 실시하다 보니 결사율이 높았다. 최저 기준 미충족자도 빠져나가면서 실질 경쟁률이 9.13:1을 기록했다. 최초 경쟁률(64.88:1)의 7분의 1 수준이다. 그만큼 논술 실력과 최저 충족에 자신감 있다면 도전해볼 만한 전형이다. 출제 기준은 전년과 같다. 인문 계열은 인문 사회 통합형 논술로 종전 인문 계열 제시문 면접, 자연 계열은 수능 수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는 데다, 풀이 시간도 짧아 수험생의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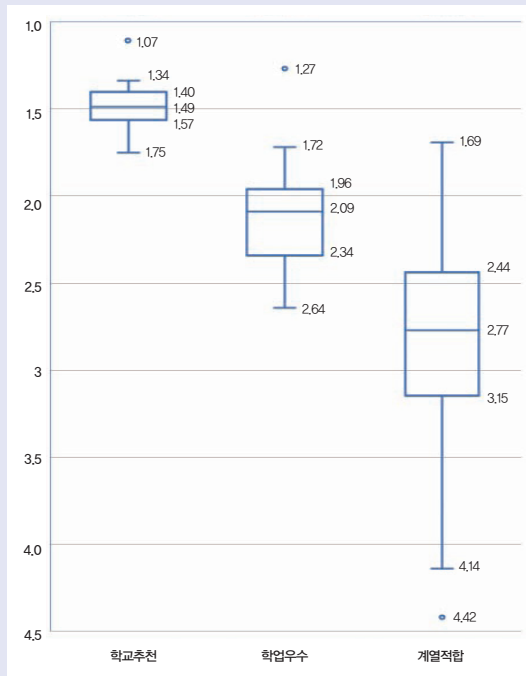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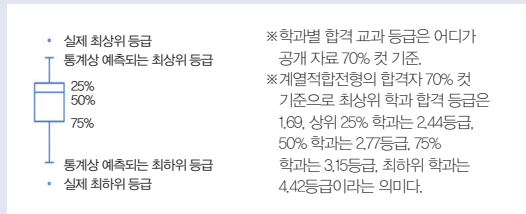
Q 수험생들에게 주목할 학과를 추천한다면?

고려대는 최근 여러 첨단학과를 개설했다. 지난해 신설한 인공지능학과는 컴퓨터학과와 합격선이 비슷하게 형성될 정도도 우수한 지원자가 많았다. 반도체공학과, 차세대통신학과,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각각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다. 반도체, 첨단통신 기술, 수소·로봇기술에 특화돼 유망하고, 입학생은 장학금 등 다양한 특전을 누릴 수 있으니 관심을 갖길 권한다.

Q 2028 대입 전형 계획은?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따라 교과·종합전형을 아울러 변별이 고민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본질을 반영하면서 교과전형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교과 산출식을 연구 중이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전형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권장 과목은 8월 중 공지할 계획이다.

고려대 수시 결과 REPORT



입학 결과

● 경쟁률

상위 3개 학과

	학교추천	학업우수	계열적합
1	환경생태공학부(11) 22.64	의과대학(29) 38.34	의과대학(15) 28.6
2	의과대학(18) 20.5	환경생태공학부(13) 26.85	철학과(3) 27
3	지구환경과학과(4) 18.25	보건환경융합과학부(22) 25	한국사학과(3) 20.67

하위 3개 학과

	학교추천	학업우수	계열적합
1	역사교육과(5) 4.4	영어교육과(11) 9	국어교육과(6) 11.33
2	영어영문학과(16) 4.56	역사교육과(6) 9.33	스마트보안학부(6) 11.67
3	국어교육과(8) 4.88	서어서문학과(9) 10.11	노어노문학과(4) 11.75

※ () 안은 모집 인원

● 교과 등급(70% 컷)

상위 3개 학과

	학교추천	학업우수	계열적합
1	의과대학 1.07	의과대학 1.27	의과대학 1.69
2	컴퓨터학과 1.26	반도체공학과 1.72	교육학과 1.88
3	생명공학부 1.27	수학교육과 1.74	수학교육과 2.04

하위 3개 학과

	학교추천	학업우수	계열적합
1	가정교육과 1.75	노어노문학과 3.43	보건환경융합과학부 4.51
2	서어서문학과, 노어노문학과 1.7	불어불문학과 3.36	지구환경과학과 4.42
3	지리교육과 1.67	독어독문학과 3.17	차세대통신학과 4.14

※ 어디가 발표 기준

자문 교사의 2026 고려대 수시 합격 Advice

교과전형인 학교추천전형은 전년 모집 인원 652명에 5천944명이 지원해 경쟁률 9.12:1을 기록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은 61.3%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합격자의 교과 평균 등급은 인문계 1.36, 자연계 1.28이었고,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해는 정성 평가의 비율이 낮아졌고, 최저 기준 또한 완화되므로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합격 등급이 예년에 비해 높아질 전망이다.

학생부종합 학업우수전형은 모집 인원 856명에 1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저 기준 충족률은 38.5%로 전년 대비 크게 하락했다. 인문 계열 모집 단위 평균 충원율은 87.1%였으며, 충원율이 가장 높은 모집 단위는 경영대학이었다. 자연 계열 모집 단위 평균 충원율은 60.2%로, 충원율이 가장 높은 모집 단위는 의과대학이었다. 합격자의 교과 평균 등급은 2.17로 학교추천전형보다 낮게 형성됐으며, 일반고 지원 비율은 74%였으나 최

종 합격 비율은 이보다 낮았다. 지원 시 최저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면접이 없는 만큼 학생부가 중요하다. 3학년까지 충실하게 학교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학생부종합 계열적합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15:1이었다. 면접 응시율은 97.7%로 매우 높았고 학업우수전형에 비해 충원율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학처에서 밝힌 합격자의 교과 평균 등급은 인문 계열 2.23, 자연 계열 2.80이었는데 이는 특목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다른 전형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다. 2026 수시에선 면접 반영 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중이 높아 합격의 중요한 요소다.

작년에 신설된 논술전형은 64.8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저 기준 충족률은 51.7%였으며, N수생의 합격 비율이 높았다. 입학처에 공개된 논술고사 정보를 기반으로 충실히 준비해야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 [@](#)